

〈2018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심사평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2018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위해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7개 작품에 대한 독후감 127편이 접수되었다.

1차 심사는 한국문학 전문가 3인이 담당했으며, 원작에 대한 이해도와 작품의 감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 끝에 최종 심사 대상작을 선정하였다.

8월 16일에 진행된 최종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 참여했던 3인의 심사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최종 심사 대상작을 다시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작품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이다.

다음은 최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최종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는 책으로부터 얻은 독자로서 개인의 감상이 얼마나 유려한 언어로 잘 표현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원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무엇보다 책을 읽고 난 후 개인의 느낌을 적는 독후감이라는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을 읽고 쓴 고수진의 글을 최우수상으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고 쓴 공강일의 글과 김은국의 『순교자』를 읽고 쓴 최태주의 글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수상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지원자	응모작 저자	응모작	심사 결과
1	고수진	서경식	디아스포라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최우수상
2	공강일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우수상
3	최태주	김은국	순교자	우수상
4	장혜령	차학경	딕테	장려상
5	최현지	제인 정 트렌카	피의 언어	장려상
6	김재영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장려상
7	맹철영	김은국	순교자	장려상
8	홍예화	허련순	중국색시	장려상
9	한고은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장려상
10	오주영	유미리	가족시네마	장려상
11	최고경	가네시로 가즈키	GO	장려상
12	김보라	서경식	디아스포라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장려상
13	미야지마 요코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장려상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에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준비한 지원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